



보성군, 청정바다 사수와 중요로운 어촌 환경 조성

득량만 · 여자만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서



보성군에서는 청정바다 사수를 위해 도서 및 연안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적극 나섰다.
군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득량만 유품해양관광지 연안과 여자만 및 장도 해역 등에 산재한 폐그루, 폐어구, 폐스티로폼과 같은 각종 해양쓰레기 약 300톤을 연말까지 집중수거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집하장에 모은 뒤 계약된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될 방침이다.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환경을 제공하고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증강 등 지역 어업인의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중요로운 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협조와 친환경적인 참여를 통해 군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보성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대성황

10개 읍면 37개 마을 교육

영광군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관내 10개 읍면에서 총 2,1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강사로 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영농현장 애로사항, 기상재해

대책, 농기계 안전교육 등 영농 전반에 걸친 핵심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농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지금 시기에 적합한 작물별 관리 방법 및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의 이론과 현장 경험에 담긴 구체적인 설명이 많아 도움이 됐고 함께 진행된 농정 및 군정홍보의 시간을 통해 영광군이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면서 농업기술센터 및 군청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농업인과 애로사항 및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영광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보건소, 휴가철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고흥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살인진드기(SFTS) 사망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살인진드기(SFTS) 감염의 주요 매개체인 작은소침진드기(야생진드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살인진드기(SFTS)는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침진드기

에 물린 후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수칙으로는 아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고 듯자리 사용 △긴팔·긴옷을 착용하기, 아외활동 후에는 △옷은 벌고 반드시 세탁하기 △목욕하기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

꼼하게 확인하기 등이다.

군보건소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장·부녀회장 회의시 홍보 및 찾아가는 5·15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기피제 제공 등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민선 7기 군정 본격화

함평군이 민선 7기 군정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이윤행 함평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각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며 4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히 설명하고 부서별 주요현안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등을 주로 논의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책과 해결책을 논의했고,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행 가능성,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 군수가 직접 그 취지와 계획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

했고, 이달 말까지 연도별 목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새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약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민선 7기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원추리꽃길 건강 걷기 행사 성료

백만 송이 원추리꽃 감상하며 건강도 함께 쟁겨



구례군은 지난 13일 원추리꽃길 군민 건강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군은 백만 송이의 원추리가 군락을 이루는 꽃길을 따라 매년 걷기행

사를 개최하여 꽃길 홍보와 함께 군민 건강 쟁기에도 나서고 있다.

원추리꽃이 만개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1,500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댄싱 공연

과란과 준비 체조를 시작으로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광의대교 광의교까지 4km의 구간을 왕복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구례군은 지리산 노고단에 자생하는 아생화인 원추리꽃을 섬진강 서시천변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추리꽃을 식재하고 꽃길을 조성해 왔으며, 3월의 산수유꽃, 5월의 벚꽃에 이어 또 다른 구례의 명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원추리꽃이 피어 있는 서시천 구간은 지리산둘레길 19코스로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되어 있어 군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아와 걸을 수 있는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의 원추리꽃길은 여름철에 걸기 좋은 길로 호평받고 있다”며, “원추리꽃길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청탁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